



# 투쟁속보

파업12일차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만큼 의료원이 제시한 임금인상분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타결하자고 가져온 의료원의 최종안이란 말인가!!

파업 12일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료원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란 말인가?

우리지부는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환자·보호자들에게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진정성을 전달했다. 그리고 어제인 23일 오후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진전된 안은커녕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임금인상분에서 깎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간도 채 진행되지 못한 교섭은 찰나로 끝나고 말았다. 더 붙고 말고 할 여지도 없었다.

의료원은 직원들을 무엇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고대의료원의 발전, 당연히 소중하다. 고대의료원의 미래, 당연히 밝아야 한다. 우리들의 피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바로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보다 의료원이 먼저였고, 계속된 희생 강요에도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그렇게 기계속의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닳고 닳아져 빠격대고 고장 나는 현실에 ‘더 이상은 못 해 먹겠는’ 상황까지 닥쳐왔다. 그 상황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바뀌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원은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 준다면 의료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나 말하는 것인가!

단 한 번이라도 직원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의료원은 우리를 단 한 순간도,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주인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다. 그저 ‘돈 많이 드는 부품’ 일 뿐이다.

속이 뻘뻘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의 대오를 이간질하려거든 백만 번 천만 번 해 보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일 뿐이다.

의료원은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을 문자로 발송하며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시금 지급’ 으로 예년보다 높은 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단 한 번도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일시금은 임금인상이 아닌 올해 한 번만 받는 금액이기에 실제 총액으로 전환하면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원의 ‘안’ 을 일시금으로 포장하여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일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와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했다.

총결산을 까보자. 2023년 한 해만도 당기순이익이 761억 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8,608억 원에 다다르고 있다. 게다가 매출은 이미 1조 클럽에 안주하고 있는 중이다. 더더군다나 고대의료원은 빚을 지지 않고 건물을 올리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돈이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라.

의료원의 주장대로 만약 정말로 힘든 현실에 맞닥뜨려 있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지경이라면 안암, 구로, 안산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이어 남양주, 과천병원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는가.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증축과 리모델링, 확장을 멈추고 현재의 상황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순리다. 또한 경영난과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면 의료원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열어놓고 논의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년 만이다. 2년 만에 또다시 나왔다. 현장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고쳐지지도 개선되지도 않은 현장을 꾸역꾸역 메워가는 직원들의 용어리를 풀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쓰다 버릴 부품으로 취급하고 직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의료원이 져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바람을 똑바로 들어라.

노동조합 죽이기로 향하는 그 칼날을 거둬라.

**바로 오늘! 모이자! 붙어보자! 그리고 이기자!**

**장기파업 유도! 불성실 교섭규탄! 사용자 결단 촉구!**  
**고대의료원지부 2차 총파업 대회**

**일시 및 장소 : 2023.7.24(월) 오전 11시 구로병원 신관 로비**